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규석¹⁾ · 신수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전국의 성인 남녀를 개인-집단주의와 수직-수평의 두 축을 적용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척도(Triandis, 1995)를 시행하고 이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비교 조사하였다. 84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평-개인주의자(46%), 수평-집단주의자(28%), 수직-집단주의자(21%), 수직-개인주의자(5%)의 순으로 분포가 나왔으며, 비율 면에서 개인주의자들이 집단주의자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51% 대 49%). 낮은 연령대와 고학력대에서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모든 계층에서 수평성향자가 수직성향자 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문화가 전통의 수직-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적 가치관은 약하게 견지되고 있으며, 수평-개인주의자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수직-개인주의자와 수직-집단주의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변동의 양상과 문화의 프로파일을 얻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집단주의가 강하다고 여겨진다(김재은, 1987; 최봉영, 1994; 최재석, 1979 등). 이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해방이후에 도입된 구미의 개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교육제도, 생활양식, 정치체제 속에서의 생활이 지속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해방 이후에 가치관의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다양한 개념의 가치관(진보-보수, 개인-집단주의, 궁극적-도구적 가치 등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생활장면(근로생활, 가정생활, 학교

생활 등등)에서 이들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한국사회가 전통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태도를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임희섭, 1994; 차재호, 1986; 차재호·정지원, 1993 등).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최근에 문화비교의 중요한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개인/집단주의 이론의 틀을 적용시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인/집단주의 이론에서 새로운 축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직/수평성 축을 도입하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두 가지 축을 적용시킨 4가지 유형틀로 개인들의 가치체계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유형을

1) 자료의 분석과 표의 정리를 맡아준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양관승과 김경자 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초기의 심사를 꼼꼼하게 보여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분류하여 전통적 가치체계(가족주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개인/집단주의 이론

개인/집단주의 이론(Markus & Kitayama, 1990; Triandis, 1989, 1995)은 문화권이 다른 사회 및 그 성원들이 보이는 다양한 가치관, 사회적 지각, 정서, 동기, 관습, 제도 등의 차이점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다(조공호, 1996; 한규석, 1991; Triandis, 1995).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그 이론 또는 매우 유사한 개념들을 적용하여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Kim, Triandis, Cagiticbasi, Choi, & Yoon, 1994; Triandis, 1995).

Triandis와 그의 동료들은 개인/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을 네 가지 하위속성을 들어 비교하고 있다. 마치 조류를 정의하는 중요한 속성이 몇 가지 있고(날개의 유무, 깃털의 유무 등) 이들 속성에 의하여 조류에 속하는 다양한 과(科)의 새들이 분류되듯이 개인/집단주의도 이를 규정하는 속성들이 있고 이들 속성에 따라서 각 문화나 나라의 특성이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네 가지 속성으로 첫째, 자아의 특성이 개별적인 개체(독립적 자아)의 특징을 많이 반영하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상호의존적 자아) 특징을 많이 반영하는지를 든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둘째 속성으로 개인목표와 집단목표의 충돌시 어느 것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인지를 든다(Han & Park, 1995; Triandis, 1996). 셋째 속성으로 대인관계를 교환관계로 보는지 아니면 정(情)의 관계로 보는지의 특징이다(최상진·한규석, 1998; Mills & Clark, 1982). 넷째 속성으로는 사회적 행위의 주 결정인자가 개인의 태도인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인지의 문제이다(오세철·윤덕현, 1982). 이들 네 가지 속성에서 집단주의 사회는 관계적 자아의 강조, 집단의 목표 우선시, 정(情)의 관계 추구, 규범의 지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특색을 보이고, 개인주의 사회는 개별적 자아, 개인 목표 우선시, 교환관계 추구, 태도의 지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특색을 보인다.

이 같은 네 가지 하위요소들로 두 가지 문화권의 특징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는 것은 그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문화비교적 연구들의 결과를 개인/집단주의 이론의 틀로 수렴하는 것이다. 즉 그 이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애매하다는 비판을 수 용하면서 개인/집단주의 이론을 보다 명확한 분석의 틀로 만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이론의 정련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집단주의 이론이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동일 문화권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에서 각 나라가 보이는 중요한 차이들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여겨지는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의 제국들 간에 있어서 집단주의의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몇몇 연구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최상진, 1993 등). 마찬가지로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이라 해도 북구라파의 여러 나라와 미국, 독일간의 문화차이는 현저하다는 것이다.

수직/수평성 차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Triandis (1995)는 최근에 개인/집단주의 이론을 정련화 하는 시도로서 수직/수평성(vertical/horizontal)을 별개의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 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문화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가 같은 집단주의권(혹은 개인주의권)이라고 해도 대인관계에서 서열, 위계성을 바탕으로 수직적 교류를 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평등성을 바탕으로 수평적 교류를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성원들의 대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에, 중국이나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성원들의 위계를 중시하는 차이를 지닌다. 한편, 스웨덴의 개인주의 문화는 평등성을, 그리고 미국의 개인주의는 위계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특징을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같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다양한 계층과 특성을 지닌 성원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간의 차이는 문화간 차이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

나 문화이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무시되고 획일적으로 다루어졌다.

수직/수평의 차원을 개인/집단주의에 적용시켜 얻어지는 2×2 분류 틀의 각 방안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수평-개인주의(HI)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성원으로보다는 자율적(self-reliant)인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자신을 남보다 탁월한 존재로 여기거나 높은 지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수직-개인주의(VI)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 수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이 크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러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것으로 여긴다. 수평-집단주의(HC)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를 비슷하다고 여기며,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며,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간의 지위격차나 위계성, 사회적 권위의 획득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반면에 수직-집단주의(VC) 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하며, 서로간의 위계질서가 확고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Triandis & Gelfand, 1998).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구성비율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인지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즉 개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수직-개인적 생각(시험을 치르는 상황, 경쟁하는 상황), 수직-집단적 생각(가족, 직장 속의 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 수평-개인적 생각(낯선 이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경우), 혹은 수평-집단적 생각(동지애를 느끼는 경우)을 하게 된다. 다만 문화권에 따라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 문화의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쉽다. 즉 문화권에 따라 애매한 상황에 폭넓게 작용하는 인지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가장 지배적인 유형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문화비교 연구들(Triandis, Chen, & Chan, 1998; Triandis & Gelfand, 1998)에서 홍콩에서는 수평-집단주의자(41%), 수평-개인주의자(25%), 수직-개인주의자(19%), 수직-집단주의자 순으로 빈도분포가 나타난 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수평-개인주의자(43%), 수평-집단주의자(25%), 수직-개인주의자(21%), 수직-집단주의자 순으로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수평-개인주의자(34%), 수평-집단주의자(33%), 수직-개인주의자(20%), 수직-집단주의자의 순으로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적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로, 동일 문화권(집단주의 혹은 개인주의)에 속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수직/수평성 차원의 도입이 나라들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 문화권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수직/수평성 차원이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한국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이며 그 중에서도 수직적 사회로 분류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매우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간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다양한 관행과 정서, 그리고 신분질서에 바탕한 교류행위를 보이는 양상들로 인해서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같은 분류는 1960대 말에 행해진 문화비교 연구자료(Hofstede, 1980)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한국은 55개국의 비교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약하며(44위), 권력과의 거리(power distance)차원에서 27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급속히 전개된 사회의 민주화, 경제제도의 자본주의체제화, 서구식 교육제도와 교육사상에 입각한 교육의 보편화 등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가치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 중에서 연구자들은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가치들이 개인주의 문화의 가치와 대립

되는 측면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족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하는데, 가족 집단의 유지와 번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이 보이는 노력을 지칭한다(이효재, 1994). 한국의 가족주의는 유교사상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 이전 시대에도 가족은 중요한 사회체제이었지만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으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짓고, 가족 내 역할구조가 위계성을 강조하며, 가문의 영속성을 가족의 목표로 삼는 특징은 조선 이전의 사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조선 이전 시대에는 제도로서의 가족은 있었으나 이념으로서의 가족주의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가족주의는 오늘날 그 폐단이 지적되면서 그 양태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조해정, 1985).

유교는 가족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조 오백여년의 통치철학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교철학은 인간사회를 보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데, 그 주요 특징은 천인합일 사상, 차등적 질서를 당연시하며,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고, 교류의 원칙으로 예(禮)를 강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최봉영, 1994; 최흥기, 1986). 유교는 사람들에게 지켜져야 할 많은 규범을 부과하

였고 이들 규범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내재화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최흥기, 1986).

본 연구는 개인/집단주의 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현재의 한국사람들이 보이는 가치관의 양상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 이론이 제시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유형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치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

설문응답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여러 사업체에 근무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1,200부의 설문지를 할당표본조사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할당변수는 연령과 성별을 취하였다. 조사는 공동연구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다. 회수된 1,020부중 결측치가 많은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986명의 자료이

표 1. 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집단	응답자수	%	특성	집단	응답자수	%
연령	20대	310	31.5	종교	기독교	331	33.6
	30대	299	30.3		불교	223	22.6
	40대	218	22.1		기타	76	7.7
	50대이상	159	16.1		없음	356	36.1
	계	986	100.0		계	986	100.0
성별	남	638	64.7	거주지	서울	555	56.3
	여	348	35.3		광역시	73	7.4
	계	986	100.0		지방	358	36.3
교육수준	초등학교	36	3.7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177	18.5
	중학교	62	6.3		101 - 150만원	153	16.0
	고등학교	236	24.1		151 - 200만원	274	28.6
	대학교	519	53.0		201 - 250만원	106	11.1
	대학원이상	127	13.0		251만원이상	249	26.0
	계	980	100.0		계	959	100.0

* 계는 결측치가 제외된 합계임

며, 이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분포는 표 1과 같다. 조사는 1998년 2월과 3월에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들에게 간단한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개인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 가족주의 이념, 유교적 가치관 등을 측정하는 문항 및 응답자들의 사회적 배경변수를 알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개인/집단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Triandis(1995)가 사용한 각본 기법을 이용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 정치, 경제, 철학, 미학, 종교적인 측면에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을 골라 31개의 간단한 각본으로 작성하고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들을 네 가지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선택지는 본문에서 설명한 네 가지 유형(HI, VI, HC, VC)의 인지가 작용할 때 취할 수 있는 행위들을 무선적으로 나열한 것들이다²⁾. 응답자들은 각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 네 가지를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차례대로 선택지에 번호를 매기었다.

가족주의 척도: 전통적인 가족주의 이념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제생활에서 가족의 중요성, 가족주의적 관행, 이념이 반영되는 문항들 42개를 리커트형 5점척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신수진, 1998³⁾).

유교적 가치관: 유교사상을 우주관, 인간관, 사회관으로 구분하여 우주관으로서 천인합일 사상, 인간관으로서 차등적 질서와 수기(修己), 사회관으로서 예(禮) 사상을 다루는 문항들을 기존연구(김재은, 1987; 이정훈, 1993)를 토대로 구성하였다(각주 3 참조). 33

2) 각본의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마음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방문한 당신과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당신은 그 중 한 사람의 부탁 밖에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 친척

- 당신이 속한 직업집단의 원사님
-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재미있는 사람
-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

* 이 각본의 경우 네 가지 선택지는 위에서부터 HC, VC, HI, VI의 유형으로 간주되었다(Triandis, 1995).

개 문항을 리커트형 5점척도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결 과

조사도구의 신뢰도

개인/집단주의 각본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황 각본척도의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반분신뢰도 방법을 적용하여 응답자의 유형이 일관성있게 분류되는 정도를 살펴 보았다. 총31개의 문항을 홀수와 짝수 문항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하위척도로 나누고 각 하위척도에서 응답자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보았다. 응답자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각 상황각본에서 첫 번째로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으로 응답자를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인 선호도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수로 나타난 사람은 일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같이 제외된 사람들 뿐 786명중에서 홀수문항척도와 짝수문항척도의 응답에 의한 분류가 같게 나타난 사람은 94.1%인 740명으로 나타나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반분척도 상에 나타나는 응답자 유형의 빈도는 홀수문항척도의 경우, 수평-개인주의(HI, 44.8%), 수직-집단주의(HC, 24.5%), 수직-개인주의(VI, 5.7%), 수직-집단주의(VC, 4.7%)로 나타났으며, 짝수문항척도의 경우 HI(40.2%), HC(24.5%), VC(11.6%), VI(5.7%)로 나타났다. 비록 두 경우에 VI와 VC의 빈도서열이 뒤바뀌었지만 이들 빈도의 발생이 근소하고, VI와 HC유형의 빈도가 같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척도의 반분신뢰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가족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주의 척도를 주성분분석한 결과,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났다(신수진, 1998). 이들 요인들은 ‘남성중심의 가족주의’(11항목), ‘부모자식 동일시’(4항목), ‘가통의 계승’(5항목)으로 이름지을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주의 척도와 유교적 가치관 척도에 대한 내용과 분석결과는 신수진(1998)의 논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다. 본 연구는 신수진(1998)의 자료를 초점을 달리하여 분석하면서,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그 결과만을 이용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요인의 이름을 약간 변경하였다.

수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알파)를 구한 값은 각각 .85, .80, 그리고 .67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 의미를 보면,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요인은 여필중부, 아들선호, 순수혈통의 보존 등에 보이는 관심의 크기를 말한다. ‘부모자식 동일시’ 요인은 자식의 성공을 부모의 성공과 동일시하는 정도,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 등을 묻는 항목들이며, ‘가통의 계승’ 요인은 종친회 활동에의 관심, 조상과 제사에 대한 관심을 보는 문항들이다.

유교적 가치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교적 가치관 척도를 주성분분석한 결과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인다(각주 2 참조). 이들 요인들은 ‘유교적 인생관’(15항목), ‘처세술’(6항목), ‘차별적 질서’(4항목)라고 이름지을 수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알파)를 구한 값은 각각 .83, .62 그리고 .55로 나타났다. ‘유교적 인생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수양, 인간관계, 몸가짐 등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되어졌던 내용들이다. ‘처세술’은 살아가면서 필요시 되여지는 체면, 인사치레, 옷차림에 대한 관심으로 역시 전통적으로 대인관계의 규범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내용이다.

응답자들의 반응양상

비록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표집 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의 시도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 성인들이므로 이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가치의 양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선호되는 응답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최하위에 나오는 반응을 가장 기피되는 반응으로 여기는 관행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선택지에 대한 선호를 상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들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제일 선호되는 유형의 반응과 가장 기피되는 유형의 반응을 빈도와 비율로 표 2에 제시되었다.

한 응답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70%를 넘는 상황까 본은 8개(3, 4, 7, 9, 10, 14, 16, 29번)로 나타났다. 이들에게서 나타난 지배적인 응답유형은 HI(9, 10, 14,

29번), HC(3, 4, 16번), VI(7)으로 나타났다. 각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응답의 유형을 검토해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시에 피해액에 따라 차등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며(HC 3번)⁴⁾,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 부탁을 들어줄 사람으로 친척을 택하며(HC 4번), 정치투표를 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며(VI 7번), 직장에서 논쟁 시에는 모든 사실을 고려한 후 자신의 입장을 취하며(HI 9번), 누군가를 채용할 때는 일하기 편한 자를 채용하며(HI 10번), 웃을 고를 때 자신의 독특한 개성에 어울리는 것을 고르며(HI 14과 29번), 에어콘의 우선권 배정은 가장 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HC 16번).

수평-개인주의(HI)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생활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 같은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본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흥미 있는 것은 사람들의 유형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수직-개인주의(VI)유형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7번 문항이다. 이 문항은 투표 시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VI유형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다른 응답들(상류층인사, 친척,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응답이 많이 나타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7번 문항에 대한 응답양상(VI유형이 66%로 나타남; 표 2 참조)을 보았다. 보너스의 배분방식에서 ‘기여한 대로 배분한다’는 응답이 다른 응답(모두 동등하게, 각자 필요대로, 회사내의 직위에 따라)보다 크게 선호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두 가지 문항에 대한 VI(수직-개인주의)유형의 선호를 보면, 경쟁을 당연시하는 면에서 이 유형에 대한 보편적인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경쟁의 불가피적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양가적 가치관을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피도에 있어서 한 유형의 응답이 70%를 넘는 상황까 본은 6개(3, 4, 8, 18, 21, 24번)이며, 이것들에서 나타난 응답유형은 HI(8, 21번), VC(3, 18번), VI(4, 24번) 이었다. 각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기피되는

4) 괄호안의 영문자는 그 응답의 유형을 말하며, 숫자는 척도상의 문항번호임.

표 2. 각상황별 반응유형의 선호도와 기피도(빈도, 괄호안은 %)

문항	응답 유형	가장 선호 하는 응답	가장 기피 하는 응답	문항	응답 유형	가장 선호 하는 응답	가장 기피 하는 응답
1. 친구와 저녁 식사후 계산	HC	237(24.1)	121(13.38)	9. 논쟁시에 입장결 정행동	HC	99(10.1)	118(13.27)
	VC	451(45.0)	152(16.81)		VC	50(5.1)	293(32.96)
	HI	202(20.6)	106(11.73)		HI	782(79.7)	27(3.04)
	VI	91(9.3)	525(58.08)		VI	50(5.1)	451(50.73)
계		981(100)	904(100)	계		981(100)	889(100)
2. 스포츠 경기 치르는 방법	HC	384(39.6)	73(8.27)	10. 고용시 중요요인	HC	29(2.9)	540(60.88)
	VC	141(14.5)	450(50.96)		VC	70(7.1)	211(23.79)
	HI	222(22.9)	86(9.74)		HI	723(73.6)	19(2.14)
	VI	223(22.0)	274(31.03)		VI	161(16.4)	117(13.19)
계		970(100)	883(100)	계		983(100)	887(100)
3. 자연재해 피해 보상 원칙	HC	826(84.3)	73(7.73)	11. 타인과 갈등 해결 과정	HC	564(57.7)	54(6.08)
	VC	7(0.7)	766(81.14)		VC	220(22.5)	139(15.65)
	HI	112(11.4)	19(2.01)		HI	140(14.3)	163(18.36)
	VI	35(3.6)	86(9.11)		VI	54(5.5)	532(59.91)
계		980(100)	944(100)	계		978(100)	888(100)
4. 밤새 함께 할 부탁 들어줌	HC	714(72.7)	37(4.13)	12. 자신을 묘사하는 한 단어	HC	251(25.6)	42(4.84)
	VC	109(11.1)	29(3.24)		VC	585(59.8)	55(6.34)
	HI	132(13.4)	114(12.74)		HI	95(9.7)	459(52.94)
	VI	27(2.8)	715(79.87)		VI	48(4.9)	311(35.87)
계		982(100)	895(100)	계		979(100)	867(100)
5. 어느 모임에 우선 갈까	HC	187(19.0)	243(27.12)	13. 모임가입의 결정 요소	HC	60(6.1)	247(28.13)
	VC	158(16.1)	317(35.38)		VC	135(13.8)	282(32.12)
	HI	248(25.2)	238(26.56)		HI	610(62.4)	84(9.57)
	VI	390(39.7)	98(10.94)		VI	173(17.4)	265(30.18)
계		983(100)	896(100)	계		978(100)	878(100)
6. 예술품 구입시 고려요소	HC	295(30.0)	88(9.81)	14. 옷스타일 결정 요인	HC	117(11.9)	249(28.42)
	VC	80(8.2)	367(40.91)		VC	39(3.0)	393(44.86)
	HI	464(47.2)	82(9.14)		HI	738(75.3)	27(3.08)
	VI	143(14.6)	360(40.13)		VI	86(8.8)	207(23.63)
계		982(100)	897(100)	계		980(100)	876(100)
7. 정치투표시 결정요소	HC	130(13.4)	109(12.34)	15. 사업추진 파트너 선정요소	HC	409(41.5)	118(21.36)
	VC	23(2.3)	574(65.01)		VC	275(27.9)	127(14.43)
	HI	130(13.4)	179(20.27)		HI	206(20.9)	249(28.30)
	VI	689(70.9)	21(2.38)		VI	95(9.7)	316(35.91)
계		972(100)	883(100)	계		985(100)	880(100)
8. 중고차 구입시 고려요소	HC	86(8.8)	205(23.01)	16. 누구에게 에어컨 설치를 먼저 하나	HC	697(70.8)	14(1.59)
	VC	591(60.4)	23(2.58)		VC	89(9.0)	27(3.06)
	HI	32(3.2)	635(71.27)		HI	37(3.8)	538(60.93)
	VI	270(27.6)	28(3.14)		VI	162(16.4)	304(34.43)
계		979(100)	891(100)	계		985(100)	883(100)

표 2. 계속

문항	응답 유형	가장 선호 하는 응답	가장 기피 하는 응답	문항	응답 유형	가장 선호 하는 응답	가장 기피 하는 응답
17. 보너스 분배원칙	HC	42(4.3)	371(42.21)	25. 관심을 끄는 책	HC	131(13.5)	149(17.03)
	VC	46(4.7)	442(50.28)		VC	444(45.5)	123(14.06)
	HI	242(24.7)	40(4.56)		HI	75(7.7)	516(58.97)
	VI	651(66.3)	26(2.96)		VI	325(33.3)	87(9.94)
계		981(100)	879(100)	계		975(100)	875(100)
18. 이혼율을 줄이려면	HC	661(67.3)	36(4.1)	26.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HC	70(7.1)	384(43.64)
	VC	240(24.4)	642(73.2)		VC	208(21.3)	195(22.16)
	HI	21(2.1)	21(2.39)		HI	614(62.8)	30(3.41)
	VI	60(6.1)	178(20.3)		VI	86(8.8)	271(30.80)
계		982(100)	877(100)	계		978(100)	880(100)
19.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HC	128(13.1)	222(25.31)	27. 복권당첨금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	HC	435(44.4)	75(8.55)
	VC	144(14.7)	338(38.54)		VC	155(15.8)	188(21.44)
	HI	417(42.6)	93(10.6)		HI	339(34.6)	88(10.03)
	VI	289(29.6)	224(25.54)		VI	51(5.2)	526(59.98)
계		978(100)	877(100)	계		980(100)	877(100)
20. 행복은 무엇을 통해 얻어지나	HC	188(19.3)	126(14.4)	28. 종업원 승진에 가장 중요한 요인	HC	152(15.5)	89(10.14)
	VC	218(22.3)	125(14.29)		VC	39(3.0)	608(69.25)
	HI	535(54.9)	66(7.54)		HI	527(53.7)	50(5.69)
	VI	34(3.5)	558(63.77)		VI	263(26.8)	131(14.92)
계		975(100)	875(100)	계		981(100)	878(100)
21. 여행결정시 상의할 대상은	HC	594(60.6)	13(1.48)	29. 사회적 행사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옷	HC	47(4.8)	104(11.86)
	VC	74(7.5)	89(10.15)		VC	37(3.8)	256(29.19)
	HI	77(7.8)	627(71.49)		HI	809(82.4)	23(2.62)
	VI	236(24.1)	148(16.88)		VI	88(8.0)	494(56.33)
계		981(100)	877(100)	계		981(100)	877(100)
22. 복권당첨금은 어떻게 할까?	HC	36(3.7)	303(34.71)	30. 가장 만족스러운 행동	HC	78(7.9)	201(23.00)
	VC	472(48.2)	26(2.98)		VC	286(29.2)	74(8.47)
	HI	346(35.3)	181(20.73)		HI	524(53.4)	71(8.12)
	VI	125(12.8)	363(41.58)		VI	93(9.5)	528(60.41)
계		979(100)	873(100)	계		981(100)	874(100)
23. 사진작가에게 팔고 싶은 사진은	HC	245(25.1)	152(17.45)	31. 노사갈등의 해결 방법	HC	586(59.4)	49(5.59)
	VC	175(17.90)	359(41.22)		VC	220(22.3)	110(12.56)
	HI	418(42.9)	156(17.91)		HI	124(12.6)	164(18.72)
	VI	136(13.0)	204(23.42)		VI	52(5.3)	553(63.13)
계		974(100)	871(100)	계		986(100)	876(100)
24. 흥미있는 광고 만들기 종류	HC	148(15.1)	82(9.33)				
	VC	373(38.1)	37(4.21)				
	HI	411(41.0)	48(5.46)				
	VI	47(4.8)	712(81.00)				
계		979(100)	879(100)				

응답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시에 신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서는 안되며(VC 3번), 마을에 큰 사고발생시 상대의 부탁을 들어 줄 사람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는 안되며(VI 4번), 중고차를 구입할 때 모양 때문에 구입해서는 안되며(HI 8번), 이혼을 줄이는 방편으로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VC 18번), 여행을 떠날 때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 것을 좋지 않다고 여기며(HI 21번), 광고제작시에 호화스런 자동차 광고의 제작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수평-개인주의)응답이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면서도 두 문항에서 가장 기피도가 높게 나타난 현상을 검토하였다. 8번 문항은 중고차 구입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로써, HI응답은 “모양이 이쁜지, 꿈같이 달리는지”이며 이 응답이 기피도 첫 순위로 나타났다. 21번 문항은 여행을 하러 할 때 상의하는 상대자를 묻는 것으로 HI응답은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다”로 다른 응답(부모, 친구, 여행가이드)에 비해 가장 기피되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반응은 HI유형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지만 자기만 좋을 대로의 행위는 기피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31개 상황을 가장 선호되는 응답으로 구분한다면, 수평-개인주의(HI, 13개 상황), 수평-집단주의(HC, 10개 상황), 수직-집단주의(VC, 5개 상황), 수직-개인주의(VI, 3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유형 빈도의 출현순위와 같은 양상이다. 그러나 가장 기피되는 응답으로 구분한다면 VI(12개 상황), VC(12개

상황), HI(5개 상황), HC(2개 상황)으로 나타났다. 기피도에서 HI와 HC의 순위가 선호도의 순위와는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 독특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반적으로 HI의 반응이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가장 기피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가장 기피도가 낮은 것은 HC 반응이라는 점이다. 이는 수평-집단주의(HC) 반응이 가장 무난한 반응으로 여겨짐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유형과 배경변인과의 관계

응답자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문항분석의 논리를 적용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유형을 최대한 구별해 주기 위하여 상황각본 각각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자료를 택하여, 70%이상의 응답자가 한 유형에 선호도를 보인 문항들을 유형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한 문항들은 응답자들을 구분해 주는 변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렇게 8개가 제외된 23개의 상황에 대한 선호도 응답에서 개인별로 가장 많이 택한 유형을 그 개인의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절차에서 138명이 두가지 이상의 유형에 같은 수의 응답을 하여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84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을 서열로 본다면 HI(46.0%), HC(27.9%), VC(21.1%), 그리고 VI(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평-개인주의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수평-집단주의자, 수직-집단주의자, 수직-개인주의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수평-개인주의자의 분포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 확

표 3. 연령과 학력의 구분에 따른 각 유형의 출현빈도 (빈도/비율)

		수평집단주의(HC)	수직집단주의(VC)	수평개인주의(HI)	수직개인주의(VI)	계
30대 이하	고졸이하	43 / 30.3	36 / 25.4	60 / 42.3	3 / 2.1	142
	대학이상	95 / 24.4	54 / 13.9	220 / 56.6	20 / 5.1	389
	계	158 / 26.0	90 / 16.9	280 / 52.7	23 / 4.3	531
40대 이상	고졸이하	54 / 37.2	46 / 31.7	38 / 26.2	7 / 4.8	145
	대학이상	45 / 26.2	43 / 25.0	72 / 41.9	12 / 7.0	172
	계	99 / 31.2	89 / 28.1	110 / 34.7	19 / 6.0	317
총 계		237 / 27.9	179 / 21.1	390 / 46.0	42 / 5.0	848

인되었다. 저학력(중학교졸 이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수평-집단주의(37명, 45.1%)이나, 고교학력 소지자에게서는 수평-개인주의자가 79명 (37.8%)으로 나타나고, 대학이상의 학력 층에서는 수평-개인주의자의 비율이 290명(52.1%)로 늘어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출생연대와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평-개인주의자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수직-집단주의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 N = 832) = 38.36, p < .001$).

연령과 학력이 이들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더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을 40대 이상과 30대 이하로 구분하고 학력을 고교이하 학력과 대학이상 학력으로 구분하였다(표 3).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집단주의자(HC + VC), 개인주의자(VI + HI), 수평성향자(HC + HI), 수직성향자(VC + VI)로 통합하여 그 빈도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비율을 가지고 연령과 교육의 각 방안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형만을 그림으로 재구성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가 교육정도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수평성향자는 모든 방안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서 개인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집단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등교육이 개인주의적 가치의 확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

겠다. 그러나 교육, 연령의 고저에 무관하게 수평성향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위계성을 중시하는 행태가 평등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미 변화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양상은 한국 사회에서의 변화는 “집단주의 → 개인주의,” “수직성향 → 수평성향”이 모두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수직성향 → 수평성향”으로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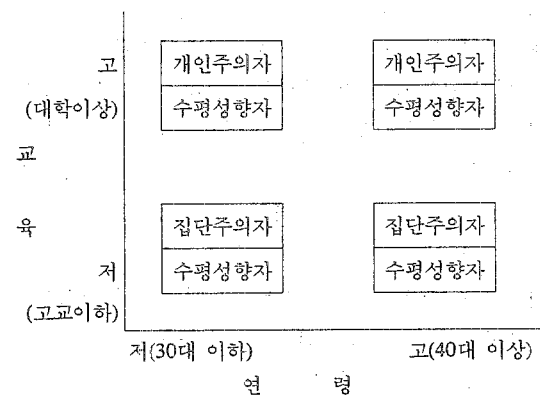


그림 1. 교육과 연령의 고저에 따라 나타난 다수 유형

성차를 분석해 본 결과, 남녀 모두 수평-개인주의자들이 다수를 점하나, 집단주의자의 경우에 남자에게서는 수평 대 수직의 비율이 65% 대 35%이나, 여자에게서는 42% 대 58%로 비율이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다($\chi^2(1, N = 416) = 21.04, p < .001$). 남녀 모두에게서 나이가 들수록 수직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와 지방 거주로 구분하여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울과 경기를 묶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HI유형이 여타지역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49.0% 대 37.3%), HC유형은 적게 나타나고 있다(25.5% 대 35.0%; $\chi^2(3, N = 848) = 10.32, p < .02$).

유형별 전통적 가치관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전래의 가치로 여겨지던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 5) 이 같은 재분류를 통해 두 종류의 합성변수를 만드는 것은 응답자들이 두 번 분류된다는 점에서 서로 독립적(orthogonality)이지 않다는 통계학적인 문제를 지닌다. 독립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응답자 개인별로 23개의 각본에서 선택한 각 선호유형의 갯수를 세어 네 개의 경향점수(HI, HC, VI, VC)로 삼았다. 이 점수들을 재분류하여 집단주의 점수(HC+VC), 개인주의 점수(HI+VI), 수직점수(VI+VC), 수평점수(HI+HC)를 구하였다. 이들 4점수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상관관계는 -0.88, 수직과 수평점수의 상관관계는 -0.89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서로 대치되는 개념의 점수간에는 역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주의(혹은 개인주의)점수와 수직(혹은 수평)점수와의 상관관계는 -0.12~0.27의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가지 축을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상당히 독립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유형별로 이들 가치관에 대한 포용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족주의: 유형별 분석을 위해서 가족주의의 하위요인별로 항목 응답치들을 단순 합산한 후에 개평하였다. 이에 응답자 유형과 성을 분석변수로 취하여 이요인 변량분석을 행하였고, 사후검증으로서는 Tukey's HSD 절차를 이용하였다(표 4).

척도의 중앙점인 3.0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의 응답양상을 논하면, '부모자식 동일시'의 경향은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지만,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또는 '가통의 계승'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남성중심의 가족주의'는 더 이상 옹호되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오직 수직-개인주의자 들만이 5점척 상에서 중간점수를 보이고 있을 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중간점수 이하를 보이고 있다.

수평-개인주의자들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응답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다. 즉 이들은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이념에 반대하며, 가통의 계승에 대한 관심이 낮고, 부모와 자식이 동체라는 의식을 매우 약하게 지니고 있다. 이들과 대조되는 집단은 수직-개인주의자들 및 수직-집단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남성중심의 가족주의를 약하게나마 수용하는 편이며, 부모자식 동일시 경향이 높고, 가통의 계승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족주의의 하위요인들 모두에서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가족주의적 가치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적 가치관: 유형별 분석을 위해서 앞에서 기술한 가족주의의 분석방식을 취하였다. 척도의 중앙점

표 4. 전통적 가치관에 있어서 유형 및 성별 응답차이(평균/표준편차)

		가족주의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부모자식 동일시	가통의 계승
유형	HC	2.88ab / .65	3.41a / .77	3.09ab / .66
	VC	2.92a / .62	3.68b / .79	3.19b / .63
	HI	2.75a / .64	3.25a / .74	2.91a / .67
	VI	3.01b / .68	3.48ab / .75	3.32b / .69
	F	4.60*(3, 810)	14.72**(3, 824)	10.63**(3, 823)
성	남자	2.99 / .61	3.49 / .72	3.11 / .65
	여자	2.56 / .61	3.22 / .84	2.90 / .69
	F	48.10**(1, 810)	19.03**(1, 824)	7.15*(1, 823)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인생관	처세술	차등적 질서
유형	HC	3.89a / .44	3.13ab / .55	3.45a / .62
	VC	4.12b / .44	3.17b / .54	3.48a / .69
	HI	3.87a / .41	2.98a / .53	3.40a / .66
	VI	3.91a / .34	3.20b / .58	3.35a / .59
	F	14.77**(3, 811)	7.18*(3, 830)	1.17(3, 832)

HC: 수평적 집단주의자, VC: 수직적 집단주의자, HI: 수평적 개인주의자, VI: 수직적 개인주의자.

*: $p < .01$ **: $p < .001$

인 3.0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적인 반응 양상을 보면, 유교적 인생관과 차등적 질서에 대한 신념은 비교적 강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처세술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은 퇴색되고 있음을 보인다.

가족주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평-개인주의자들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응답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다. 즉 이들은 '유교적 인생관', '처세술'에 대한 믿음이 약하며, 이들과 대조되는 집단은 수직-개인주의자들 및 수직-집단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유교적 인생관, 처세술에 대한 믿음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등적 질서' 요인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유교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간의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집단주의 이론을 도구로 삼아서 현재 한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가치관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집단주의 이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수직/수평성향의 축을 도입하여 각 지역에서 일반 근로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이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차이를 특히 전통적 가치체계인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겠다.

가치관의 변화양상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서열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라고 여겨져 왔다. 본 조사 결과는 수평적 개인주의의 가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흔히 문화변동을 논할 때에 "집단주의→개인주의"로의 단일 차원상의 변화가 핵심적 논점이 된다. 그러나 "수직성→수평성"의 변화가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변화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본 연구는 보여 준다.

수직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서열을 바탕으로 깔고 전개된다. 서열은 나이, 직위, 신분, 경력, 역할 및 관행에 의해 매겨진다. 두 사람 사이에서 매겨진 서열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매겨진 서열에 따라 상위의 서열에 있는 사람은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고, 의견이 존중되며, 대접을 받으며, 개인적인 행위도 용납이 된다. 반면에, 하위의 서열에 있는 사람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많이 지니고, 상대의 의견을 구하고 존중해야 한다. 수직적인 사회에서는 서열이 중요하므로 상위 서열을 차지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하고 상위 서열자의 과시적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서열의 매김 방식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나이, 출신, 신분, 연공 등의 변수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능력, 자질, 업적 등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수평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대등한 위치에서 전개된다. 필요에 따라 서로간의 서열이 성립하기도 하지만 이 서열은 영속성을 지니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성립되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수직성향보다는 수평성향을 강하게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의 높고 낮음,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방안으로 구분하였을 때 어느 방안에서나 수평적 성향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같은 결과는 생활문화적 관행에 있어서 위계적인 경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면, 언어생활의 존비어 사용, 웃사람에 대한 공경, 호칭문화 등등), 개인들의 의식수준에서는 평등적인 경향이 이미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즉 윗사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향유하던 사회적 특별대우는 부당한 것이며, 각 상황 특성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임을 뜻한다. 이 현상은 서구식 교육제도와 민주적 정치제도의 보편화에 따른 평등의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직-수평성의 차원이 지니는 독립적인 정보가 기존의 개인/집단주의 논의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Hofstede(1980)의 분석에서 문화분류의 차원으로

나타난 권력과의 거리(power distance)가 개념적으로는 수직-수평성의 차원과 유사하다. 이 차원은 개인/집단주의 차원과 매우 상관관계($r = .6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수직-집단주의 국가와 수평-개인주의 국가가 전형적인 양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두 차원을 분리하여 취급하는 분석 틀을 취함으로써 문화권내에서 가치변화의 양상이 보이는 역동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유형이나 가장 선호하는 응답유형을 보면, 수평-개인주의자들의 비율이 46%를 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직-개인주의자들 5%를 합하면, 개인주의자들이 51%로 과반수를 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을 넘어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개인주의로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집단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더욱 많으리라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79년에 전국의 성인 남녀(20대와 50대이상)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자료료를 재분석한 연구(차재호·정지원, 1993)에서는 개인주의로의 변화가 두드러지지만 집단주의자들이 전체의 62.5%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분류도구의 차이가 커서 이같은 결과를 본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난 20년간 개인주의적 사고와 행위가 보다 광범위하게 퍼진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한국의 성인집단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도,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향을 확인해 주고 있다(차재호·정지원, 1993; 한성열·안창일, 1992 등). 즉 현대화의 압

력을 많이 받는 집단들 - 젊은 세대와 고 학령인구, 대도시거주 사람들 - 에서 개인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호도에 있어서 수평-개인주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통적인 수직-집단주의로부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피도의 분석을 보면, 수평-개인주의적 가치에 대한 혐오경향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평-개인주의적 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이 양가감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남을 고려하지 않는 식의' 개인주의적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인들이 가장 거부감을 덜 갖는 것은 수평-집단주의적 가치로 여겨진다. 이는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되 '너는 너, 나는 나'식의 독립적인 생활방식보다는 '우리'의 관계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인식을 지닌 생활방식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가지 유형의 분류 틀은 상황별로 지배적인 사고의 특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기업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수직-개인주의(자신의 고과가 좌우되는 상황), 또는 수직-집단주의적(자신의 팀 수행이 문제되는 상황) 행동과 사고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 연구(이종한, 1993)는 국내에서 기업체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분배상황을 각본으로 제시한 결과 형평원리의 규범이 지배적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다른 문화비교 연구들(Kim, Park, & Suzuki, 1990; Leung & Park, 1986)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균등원리를 선호한다는 결과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체의 종업원들이 분배상황에서 취하는 행위는 수직-개인주의적 규범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흔히 한국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라고 여기고 그에 따른 다양한 행동과 사고의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국가의 문화는 다양한 하위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그 상황과 사람들의 층에 따라 다양한 규범이 차이 있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

6) 비록 본 연구에서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표본을 취했으나 표집대상이 일반 성인이 아니라 근로 성인이었고, 무선표집이 아니어 비교적 교육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표집되었다(표 1 참조). 특히 대졸이상이 전체의 66%로 나타나, 모집단의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수평-개인주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같은 고학력표본의 특성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연령에 있어서 수평-개인주의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평균 14.8년) 나타나 이들이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사용한 문화의 두 차원 틀은 이 같은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네 가지 유형인들이 지닌 특성과 전통적 가치관의 비교

수평/수직, 개인/집단주의의 두 축으로 구분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지닌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수직-집단주의자(VC)들은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21%로 나타났으며,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의 거의 모든 요소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모자식 동일시', '유교적 인생관'의 경향이 가장 강하며, '가통의 계승', '처세술'을 중시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수직-개인주의자(VI)들은 5%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족주의적 전통을 옹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체면, 인사치레 등 대인관계의 전통적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들(VI)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유형은 가장 많은 비율(46%)로 나타난 수평-개인주의자(HI)로 이들은 가족주의 전통과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가장 약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람들이다. 한편 수평-집단주의자(HC)는 28%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응답은 HI와 VI의 중간에 떨어지고 있다.

한 연구(Chen & Meindl, submitted; Triandis, 1995, p. 45 재인용)는 중국에서 수직-집단주의자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개혁을 지지하는 반면에, 수평-집단주의자는 반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수직성향자들이 위계와 권위에 민감한 반면에, 수평성향자들은 유교적 친밀성 가치를 중시하고 개혁이 조직의 경쟁분위기를 선도하여 조직의 응집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꺼리는 까닭으로 유추되고 있다. 아울러 수직-집단주의자들이 보상 배분시 형평원리를 선호하는 반면에, 수평-집단주의자는 형평원리에 반감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Chen, Meindl, & Triandis, 1997). Triandis(1995; Triandis & Gelfand, 1998) 등이 주장하는 네 가지 유형의 특징에 따르면 수직-개인주의자들은 경쟁을 관계의 법칙으로 여기며 쾌락주의적 가

치관이 강한 반면에, 수평-개인주의자들은 자율, 자조 정신이 강하고 집단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수직-집단주의자는 가족의 융합을, 수평-집단주의자는 상호의존과 공유의식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일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조사의 결과 나타난 수직-개인주의자와 수평-개인주의자들의 직업 분포⁷⁾, 수직-집단주의자의 전통적 가치관 양상으로 보았을 때 Triandis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이들 각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 및 사고에 있어서의 차이연구가 이 이론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하다.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유형별 분석결과는 집단주의자와 개인주의자 간의 차이보다는 수직성향자와 수평성향자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이는 본 조사에서 사용한 전통적 가치관이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이며, 이들 전통적 가치관이 위계적 질서와 신분의 유지 측면을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문화의 특성 측정

특정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다양한

- 7)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 응답자들의 직업을 학생, 주부, 단순직, 서비스자영업, 회사원, 간부, 전문직, 기타로 구분하여 각 직업범주에서 유형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수평-개인주의자(HI)들은 대부분의 직업범주에서 3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생(62.9%), 서비스자영업(44.9%), 회사원(47.7%), 전문직(55.2%), 기타(70.3%)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수직-개인주의자(VI)들은 대부분의 직업범주에서 5% 내외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간부 경영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23.8%). 한편 수평-집단주의자(HC)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20% 내외로 나타났으며, 단순직(51.0%), 서비스자영업(32.7%)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수직-집단주의자(VC)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20% 내외로 나타났으나 주부(35%)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학생(9.7%)들에서 특히 적게 나타났다.
- 8) 두 가지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해 본 결과, 집단주의자와 개인주의자의 차이보다는 수직성향자와 수평성향자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체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다면 수평-집단주의자와 수평-개인주의자가 한 묶음으로 묶여져, 다른 두 유형의 수직성향자와 구분되고 있다. 전체를 세 집단으로 묶는다면 수평-집단주의자, 수평-개인주의자, 두 유형의 수직성향자로 구분된다.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파악하여 그 나라의 문화프로파일을 얻는 접근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쓰인 상황 각본을 이용한 척도구성은 흔히 쓰이는 리커트 유형의 척도와 비교했을 때 응답하기에 용이하고, 지루함을 덜어주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리커트 척도는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반응을 막기 어려운데 반하여 각본척도에서 제공한 선택형 응답지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면과 바람직하지 못한 면을 모두 지니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을 막을 수 있어, 응답의 진실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다. 각본척도를 이용한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리커트형으로 제작된 척도(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와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다특성-다방법 연구에서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Triandis & Gelfand, 1998). 비록 각본척도가 지닌 타당도가 몇몇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쓰인 각본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각본들의 특징은 대부분의 상황이 개인적 활동공간에서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각본은 은연중에 개인주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집단주의 문화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바람직한 것은 척도의 구성시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상황 각본들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결혼은 두 개인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양가(兩家)의 결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부모가 상대방을 반대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각본으로 엮어서 제공할 수 있다. 이같이 구성된 척도를 외국에서 구성된 척도와 비교하여 문화차이를 연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척도의 문화적 편향성을 점검할 수 있다(van de Vijver & Leung, 199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평-개인주의자들의 분포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도 이 같은 척도의 편향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측정을 하는 대신에 개인에게 사회적 관행을 물어보는 방법

을 도입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듯이 응답자 개인의 의견이나 견해를 물어서 어느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가에 의해서 문화의 프로파일을 얻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닌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조사가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삼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지닌 특성이 잘못 그 문화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오류를 낳기 쉽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응답자들에게 그 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는 응답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이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의 태도 변화보다 사회적 관행의 변화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결부하여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리커트 유형의 정형화된 설문과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는 것이 비교될 수 있다. 리커트 형식의 설문조사는 한결같이 한국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나타난 응답을 분석한 연구들은 집단주의의 경향이 강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Mazday와 Szalay(1976; 차재호·정지원; 1993 재인용)는 1967년에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self)의 개념을 조사하여, 한국인의 자기는 '가족 속에 있는 나'로 미국의 '개인으로서의 나'와 확연히 구분됨을 보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의 자기에는 집단주의의 색깔이 서구의 대학생들보다 강하게 나타났다(Rhee, Uleman, Lee, & Roman, 1995).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Choi, Kim, & Choi, 1995)는 한국과 캐나다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1980년대 말의 연구에서 우리(we)의 개념을 역시 개방형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인의 우리는 '개인이 사라진 집합체'로서 우리와 남의 구별이 명확한 반면에 캐나다인의 우리는 '개인이 살아있는 집합체'로서 우리와 남의 경계가 불분명한 특색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와 모습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사고방식, 관행,

정서,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은 여전히 집단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어느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단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참 고 문 헌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철·윤덕현 (1982). 휘시베인의 행동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 오세철(저), 한국인의 사회심리. pp. 91-105. 서울: 박영사.
- 이정훈 (1993). 한국노동문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한 (1993). 남자와 여자 생산직 및 관리직 종사자의 분배원리 선호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245-253.
- 이효재 (1994). 이데올로기와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 임희섭 (1994).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조궁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 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혜청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79-96.
- 차재호 (1986). 가치관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의(편),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pp. 397-429. 서울: 법문사.
- 차재호·정지원 (1993). 현대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II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 (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 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29-244.
- 최상진·한규석 (1998). 교류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국제한국학회(편),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 최재석 (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최흥기 (1986). 한국인의 질서의식에 관한 역사적 고찰. 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의 사회와 문화, 6.
-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1-19.
- 한성열·안창일(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56-167.
- Chen, C., Meindl, J. (submitted). Collectivism and Chinese enterprise reform: A cultural adaptation perspective.
- Chen, C., Meindl, J., & Triandis, H. (1997). Testing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llectivism: A study of rewards allocation preferences in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 23-43.
- Choi, S.-C., Kim, U. & Choi, S.-H. (1995). Indigenous analysi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A Korean perspective. In U. Kim & J. Berry(Eds.), *Indigenous psychology*. CA: Sage.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Kim, K., Park, H., & Suzuki, N. (1990). Reward al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 comparison of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 188-198.
- Kim, U., Triandis, H., Kagitcibasi, C., Choi, S., & Yoon, G. (Eds.).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Newberry Park, CA: Sage.
- Leung, K., & Park, H. J. (1986). Effects of interactional goal on choice of allocation rule: A cross-national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37, 111-120.
- Mazday, B., & Szalay, L. (1976). Psychological correlates of family soci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 and Korea. In T. Williams (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Hague: Mouton.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s, J., & Clark, M.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121-144.
- Singelis, T. M., Triandis, H., Bhawuk, D.,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Rhee, E., Uleman, J., Lee, H. K., & Roman, R. (1995).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and ethnic identitie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42-152.
- Triandis, H.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51, 407-415.
- Triandis, H., Chen, X. P., & Chan, D. (1998). Scenarios for the measurement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4, 29-2, 275-289.
- Triandis, H.,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van de Vijver, & Leung, K. (1997). *Methods and data analysis for cross-cultural research*. CA: Sage.

A Cultural Profile of Korean Society: From Vertical Collectivism to Horizontal Individualism

Gyuseog Han and Soo-Jin Shin

Dept. of Psychology	Dept. of Korean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wha Women's University

A scale, developed by Triandis(1995), of classifying people into four categories (Individualism/Collectivism $\times$ Horizontal/Vertical) was administered to a sample of adult population in Korea. Among 848 people, 46% were HI, 28% HC, 21% VC, and 5% were VI. The proportion of Individualists was as high as that of Collectivists. Individualists were majority among young people and among the highly educated. In all segments of the sample, horizontalists were the majority. The shift from Collectivism to Individualism was apparent but the shift from Verticalism to Horizontalism was more apparent. Korean people's belief about the traditional value systems(familism and Confucianism) is in general not strong; it was weakest among the HI. Two issues were discussed from the results; the cultural transition and the measurement of cultural profile.